

수출 6개월 연속 늘고 내수도 꿈틀...백신 기대감속 경기 회복세

수출과 생산 호조에 소비 회복이 더해지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3월 국내 산업생산은 2개월 연속 늘고, 소비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수출도 6개월 연속 상승하며 기저효과를 넘어 절대 규모 측면에서도 선전했다는 평가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경기 회복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수출이 511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1% 늘었다.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4월 중 1위로, 2011년 1월 이후 10여년 만에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

월별 수출은 6개월 연속 늘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1월(3.9%)부터 12월(12.4%), 올해 1월(11.4%), 2월(9.5%), 3월(16.6%)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수출 호조는 주요 수출 품목에서 균형잡힌 성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10년 3개월 만에 주력 수출 품목 15개가 모두 강세를 보

4월 수출 511.9억 달러...6개월 연속 상승

생산·소비 호조에 3월 전산업생산 0.8% ↑

보복소비 영향...백화점 판매액도 늘어나

코로나19 확산세, 車 반도체 쇼크가 변수

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30.2% 늘어난 월 수출액 93억4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액이 2개월 연속 9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역별 수출액 규모도 고른 성장이 두드러졌다. 9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2018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증가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4대 지역으로의 수출은 모두 30% 이상 늘었다. 일본, 중동으로 향하는 수출도 4월에는 플러스로 전환했다.

생산 호조와 소비 회복에 전(全)산업 생산도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1월(-0.5%) 감소했다가 2월(2.1%) 반등한 뒤 3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산업생산 중 제조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 감소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도 0.8% 줄었다.

자동차(-4.8%) 생산이 줄었고, 기계장비(-3.0%)도 부진했다. 다만 D램, 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4.3%) 생산

은 호조를 이어갔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2% 늘어 전월(1.1%)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영업 제한·집합금지 완화 효과 지속으로 숙박업, 음식점업 등이 모두 늘며 숙박·음식점(8.1%) 생산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불확실성도 완화되고 경제심리도 비교적 빨리 개선됐다"며 "대면 서비스업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8월(3.0%)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다.

가전제품 등 내구재(-1.0%) 판매가 줄었지만 외부활동이 증가해 의복 등 준내구재(9.1%)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1.5%) 판매가 모두 늘었다.

소매 업체별로 보면 백화점 판매액이 보복 소비 영향으로 전월 대비 3.7% 늘었다. 한 해 전보다는 61% 급증했다. 전문소매점, 면세점, 편의점 소비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미국 등 주요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경제심리가 비교적 빨리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 회복에 대한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되고 있고, 장기간에 돌입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완성차 생산과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3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 "최근 수출, 심리 개선 등이 향후 지표 흐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코로나 확산세, 공급망 차질 우려 등 일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서선욱기자



홈플러스, 5월 가정의 달 맞아 일자별 기획전 진행

홈플러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자별 쇼핑 기념일을 만들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오리, 오징어, 삼겹살 등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사진은 모델들이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오리·오이·오삼·어포·오겹살데이' 행사 상품을 소개하는 모습.

정부, 올해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대폭 확대

평균 지체시간 41%·신호위반 36% 감소 효과

긴급차 통행시간 40% 줄어드는 효과 나타나

올해 감응신호 403곳·스마트교차로 1224곳 구축



정부가 전국 주요 국도와 도시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도교통부는 교차로 소통개선과 사고감소 효과가 큰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전국 주요 국도와 도시부에 확대하는 사업을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은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신호를 최적으로 제어해 정체를 최소화해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거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

에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등 '교통체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똑똑한 신호운영체계'를 말한다.

감응신호는 평상시에는 주도로의 통행 신호를 우선 부여하고, 부도로의 좌회전 차량을 감지한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체계다.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소통상황의 개선과 신호위반 감소에 효과가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긴급차량의 목적지를 사전에 공유하고 긴급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맞춤형 신호

를 부여해 사고처리 시간 단축과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가 있다.

스마트 교차로는 교차로의 방향별, 차종별 정보를 추출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큰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감응신호시스템 509곳과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 44곳, 스마트 교차로 746곳을 설치했다.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소통 향상, 신호위반 감소 등에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체시간은 41% 감소하고 신호위반은 36%, 긴급차 통행시간은 40%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국도와 지자체 403곳에 감응신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19개 지자체 372곳에 긴급차 우선신호를 구축하고, 31개 지자체 1224곳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원종 도로국장은 "빅데이터·센서·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신호운영체계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체감효과가 큰 스마트 신호시스템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보수적 은행권 바뀐다...유니폼 폐지하고 호칭 파괴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필요

호칭 파괴 등 임직원 만족도 높아

보수적인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은행권에 유니폼 폐지, 호칭 파괴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 빅테크와의 경쟁 등 빠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흐름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행원 유니폼을 유지했던 NH농협은행은 최근 근무복장 자율화 시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이달부터 유니폼을 없애고 근무복장을 자율화 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비즈니스 캐주얼 등을 선택해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이번 유니폼 폐지 결정은 지난달 농협은행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니폼을 없애고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자는 여론이 더 많아져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달부터 근무복 자율화를 시행할 예정으로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여직원은 자율복과 유니폼을 혼용할 수 있다"며 "오는 9월 30일 완전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유연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미 근무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근무복장 자율화 이후 업무 효율성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원 직급 개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임원을 부행장, 상무로 총칭하기로 했다. 기존에 있던 임원 직급체계에서 전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무는 이달부터 부행장으로 불리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 들끼리 영어 닉네임을 사용하고 보고 체계를 간소화한 것처럼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만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본점을 중심으로 과장, 부장 등 직급 대신 영어식 이름을 부르는 제도 도입도 도입한 바 있다.

소통을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호칭 파괴 흐름도 은행권에선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부터 기존의 직급 대신 부서별로 원하는대로 구성원들의 호칭을 정해 부르기로 했다. 시행 3개월 차를 맞은 현재 임직원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한 신한은행 직원은 "호칭 자율화는 수평적, 자율적,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변화"라며 "직급이 주는 수직적인 분위 기에서 벗어나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렉서스, 플래그십 스포츠카 'LC 500 컨버터블' 공식 출시

소프트탑 루프 적용해 컨버터블 특유의 개방감 강조



렉서스코리아는 플래그십 럭셔리 쿠페 LC의 컨버터블 모델 'LC 500 컨버터블'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LC 500 컨버터블'은 LC 쿠페의 독창적인 외관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컨버터블 특유의 개방감을 강조하는 소프트탑 루프, 럭셔리 스포츠카다운 리어 디자인 등 LC 500 컨버터블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외관 디자인으로 진화했다. 가격은 1억7800만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기준)이다.

소프트탑 루프는 서에서 모터블을 얻어 3단계로 리듬감 있게 개폐되는 접이식으로 시속 50km/h 이하의 속도에서 약 15초만에 작동된다. 렉서스는 소프트탑 적용으로 차량을 경량화하고, 루프 수납 공간을 최소화했다. 흡음재를 결합한 4중 구조로 뛰어난 정숙성을 실현했을 뿐 아니라 박진감 넘치는 엔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

LC 500 컨버터블은 후륜 구동형으

로 5.0 리터 자연흡기 V8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477마력의 최고 출력과 55.1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차체 바디는 탄소섬유와 알루미늄을 사용해 경량화했다. GA-L 플랫폼을 통한 낮은 시트 포지션은 차량과의 일체감을 선사한다.

컨버터블만의 매력인 오픈 에어 드라이빙을 위해 스포티한 엔진음을 즐길 수 있는 '사운드 제너레이터', 각도 조절이 가능한 앞좌석의 '네 히터', 루프 개폐 상태에 따라 냉난방 장치를 제어하는 '오픈 에어 컨트롤' 및 오픈 탑 주행에서도 효과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등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장착됐다.

또 충돌 사고 시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액티브 롤 바와 예방안전기술 패키지인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LSS+)' 및 '후측방 경고 시스템(RCTA)' 등 오픈탑 주행에 안심감을 더해 주는 다양한 안전 사양도 기본으로 장착됐다.

렉서스코리아 이병진 상무는 "소프트탑 루프가 적용된 LC 500 컨버터블은 렉서스가 추구하는 운전의 즐거움과 컨버터블만의 오감을 자극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오유나기자